

철도·도로연결 앞당기고 100년 먹거리 만들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을 슬로건으로 힘차게 시작했던 심덕섭호가 출범 3년을 맞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특유의 글로벌마인드와 도전정신으로 세계유산 도시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편집자 주

▶▶ 글 읽는 순서

上. 변화: 전북자치도 최초 ‘삼성전지’ 착공 초읽기, 농촌 일손부족 해결, 1천만 관광시대 개막

中. 성장: 민선 고창군 역대 최대 규모 ‘터미널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본격화’, 지역경제 활력UP

下. 미래: 서해안철도연결(대통령 공약 1번), 노을대교 완성(중액 확정), 고창종합테마파크, 김치산업화 추진

.....

심덕섭 군수의 희망찬 고창미래 만들기에 밝은 햇살이 비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 고창에서 86.29%(전북 14개 시·군 중 2위)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다.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외교안보 분야에는 고창 아산 출신 정대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발탁돼 활동 중이다.

지난달 23일에는 국방부 장관으로 고창 대산 출신 안규백 국회의원이 지명됐다.

‘고창의 숙원’ 서해안철도 연결

이재명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노을대교 총사업비 400억 증액

고창 해안가에 복합리조트 조성

사시사철 김치특화지구 육성

김치 원료 공급단지 본격화

▲서해안철도 연결, 대통령 지역공약 1번 반영

고창군의 숙원 ‘서해안철도 연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창군 공약 1번에 반영됐다. 5년 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점선으로, 장기적 검토과제로만 남아 있던 것을 올 연말에 확정 예정인 ‘제5차 국가계획’에는 실선으로 이어 실제 사업착수 단계로 끌어 내보자는 것이 핵심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사실상 수면 아래 있던 서해안 철도의 국가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주도해 왔다. 지난해 11월 서해안 철도가 지날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한데 모아 기자회견을 했고, 군민 서명운동을 비롯한 각종 퍼포먼스를 통해 주민의 열망을 정부에 지속해서 전달했다.

특히 지난 3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포럼에는 탄핵국면 속에서도 국회의원 15명, 전북·전남 도지사 2명, 시장·군수 6명 등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로 성료됐다. 논리와 기세싸움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연말에 발표될 국가계획은 물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군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을대교, 총사업비 증액 성공... “2030년 전 개통 청신호”

심덕섭 고창군수와 지역정치권의 끈질긴 설

득 끝에 ‘노을대교’의 총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2030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창군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노을대교 총사업비로 4,217억원을 통보받았다. 이는 기존보다 400억원 정도를 증액한 것으로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등 지역정치권의 노력이 빛났다.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6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해상대교 제안공방에 따른 세부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할 전체 8.86km 길이의 다리를 말한다. 완공 땀 70km를 우회해야 했던 이동 거리가 단, 7.5km로 줄어든다. 다리가 놓이면 기존 한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를 단 10분 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

▲고창 해안가, 대한민국 대표 복합 리조트 들어선다

최근 고창 해안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수십 년째 썩죽 앓던 정부 부처가 움직이며 길을 터줬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관련부서 직원들이 수차례 기획재정부를 찾아 설득한 끝에 최근 명사십리 한 중앙에 있는 10만5,344㎡를 사들이는데 성공했다. 국방부와 한국전력공사 역시 큰 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부지 활용과 매각에 동의하며 세부 절차를 조율 중이다.



최고의 풍경을 자랑하는 해안가에 대규모 미개발 부지가 있다는 소문은 국내 레저기업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고 있다. 2023년 7월30일 국내 중견기업 4개사(LIG시스템, (주)P&K INC, 영풍제약, 서울경제TV)이 고창군과 MOU를 맺고 명사십리 관광개발사업에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각 업체들은 고창 명사십리 일대에 리조트와 숙박, 스포츠, 휴양·레저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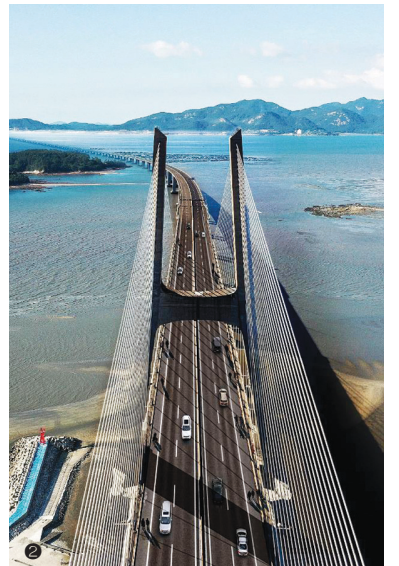
이와 동시에 국내 리조트업계 1위인 (주)모나오피도 명사십리 주변의 땅을 고창군으로부터 100억원을 들여 사들였다. 모나오피도는 2027년까지 3,500억원을 들여 중대형급 휴양형 콘도미니엄 471실을 비롯해 700여 규모의 캠프펜션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 관광활성화를 위해 주변 염전부지를 활용해 18홀 대중형 골프장을 짓고, 주변에는 고창군이 추진하는 국제카누슬

라럼 경기장, 생태갯벌플랫폼, 세계자연유산센터 등 다양한 레저·관광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김치특화 산업 도시로...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본격화”

김치 속재료인 배추와 무, 마늘, 생강의 전국 최대 생산지가 바로 고창이다. 지금까지는 원물로만 거래가 이뤄지면서 김장철 가격변동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가격폭락으로 애써 지은 배추밭을 갈아엎는 경우도 많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를 타계한 방안으로 ‘사시사철 김치원료 산업단지’를 꺼내들었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총 320억원을 투입해 저온저장고 50동과 절임가공시설을 짓는 사업이 진행중이고, 지난달 10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선도지역에도 최



①서해안 철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심덕섭 고창군수.

②노을대교

③모나오피도, 고창종합테마파크 조감도

④김치특화지구 육성 협약 체결

종 선정돼 사업비 5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사업비로는 기업육성을 위한 김치 원료산업 기반조성, 김치가공업체 육성, 김치소재 산업 조성, 배추수확 농기계 자동화 성능개선사업, 김치 부산물의 우수성 규명 연구 등이 이뤄진다. 또 김치수출 1위 기업인 대상 종가집 김치와 협약도 체결돼 김치 저장 기술과 절임배추 판매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3년여의 도전은 혁신적이었고,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새 희망을 꿈꾸게 했다”며 “남은 임기에는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웠던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고, 군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끝>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